

호남신학대 평생교육원 '퐁당 클래식' 강좌

강의와 연주를 함께 클래식 쉽게 다가서기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희(광주시 동구 학동)과 베토벤(광주시 동구 총장로)에서는 꾸준히 클래식 강좌가 이뤄지고 있다.

9월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좌 프로그램이 생겨난다. 호남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클래식 교육 프로그램 '퐁당 클래식'을 시작 한다. 클래식 길라잡이, 렉쳐 콘서트, 연주회 관람,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강좌다.

봄·가을학기는 15주, 여름·겨울학기는 8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첫 가을학기는 오는 9월7일부터 호남신학대학원을 악관 3층 예음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작곡가이자 음악평론가인 김승일 조선대 명예교수는 '클래식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고전파와 낭만파는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왜 소나타 소나타 하는가', '교향시와 교향곡은 무엇이 다른가', '음악회에서 박수의 의미와 커튼콜, 앵콜' 등의 강의를 통해 클래식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

강의와 연주가 함께하는 렉쳐 콘서트는 참가자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이종만(광주시향 악장), 박문경(광주시향 첼로 수석), 이현경(광주시향 플루트 수석), 서용일(광주시향 트럼본 수석), 김용석(광주시향 타악기 수석), 문현옥·정현수·성심온(전남대 교수) 김



정아(광주대 교수),
강양은·임해철·구재한·황양숙·박수용·박현주(호남신학대 교수), 박계(조선대 교수) 이어진(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씨 등이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수강생들과 대화로 음악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임해철



성심온

정아(광주대 교수),
강양은·임해철·구재한·황양숙·박수용·박현주(호남신학대 교수), 박계(조선대 교수) 이어진(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씨 등이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수강생들과 대화로 음악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또 가볼만한 음악회를 선택, 감상 포인트를 미리 학습한 후 공연장을 찾고 연주자를 초청해 함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퐁당클래식 1기는 가을학기(9월~12월 15주), 겨울학

기(1월~2월 8주) 등 총 23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수강료는 가을학기 5만원,

겨울학기 2만5000원.

문의 062-650-1564, 홈페이지 <http://www.hfus.ac.kr>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조의현 교수가 20여년 넘는 사재를 털어 회순 너릿새 인근에 마련한 소아르는 40대 미만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소아르 갤러리 제공〉

전시는 기본 커피숍에 정원까지 “편하게 들르세요”

경기 침체에 따른 미술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 일대에 전시장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문화가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마인드가 확산하면서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데다, 국내 및 아시아 미술계의 간판으로 위상을 수립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 디자인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굵직한 문화 행사 등도 줄을 잇고 있어서다.

24일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장동 토리에 복합 문화공간인 '쿤스트라운지'가 8월 24일 오픈한다. 옛 쿤스트 헬레(Kunsthalle) 광주에서 매니저로 활동했던 정유진씨가 마련한 문화공간으로, 150여평에 전시관과 카페, 아트숍, 정원을 갖췄다. 쿤스트 라운지는 개관 기념으로 광주에 머무르며 지역 예술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미국 작가 마이클 앤서니 사이먼의 전시를 기획중이다.

정씨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전시 기획자와 컬렉터들이 작가와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며 “누구나 쉽게 찾아오고 소통하

는 문턱 낮은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광주에서 활발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일 출신인 남편 안톤 솔즈(Anton Scholz·40) 코리아 컨설트 대표와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5월 화순 너릿새 인근에 연면적 2500평 규모로 문을 연 소아르 갤러리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대 조의현 교수 가 20여년 넘는 사재를 털여 조성한 공간으로, 전시 공간·커피숍·아트숍·스튜디오·세미나실까지 갖췄다.



남구 진월동 갤러리 리채 전경.

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여는 '호기심' 전도 역시 40대 미만 광주·전남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지역 대표 상업 화랑인 나인갤러리도 옛 인재미술관 자리로 옮겨 최근 문을 열었는가 하면, 여미아트홀은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안에 새롭게 오픈하고 '치유'를 주제로 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 남구 진월동에도 진아건설이 미술 놀이터를 표방한 '갤러리 리채'를 열었다. 기업 이윤을 사회 환원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강좌를 마련하는 등 지역민들의 문화 힘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술계 불황 불구하고 광주 곳곳에 갤러리... 만남 기득한 공간으로

'쿤스트라운지' 8월 24일 오픈... 데미화랑·소아르 갤러리 등 주목

지난 6월 예술의 거리에 문을 연 데미화랑(대표 정삼열)은 1977년 '현대화랑'으로 광주에 문을 열었다가 서울 인사동으로 옮긴지 28년 만에 다시 광주로 옮겨온 케이스다. 당시만 해도 오지호·임직순·최영임 등 중진 작가들의 개인전을 개최해 서양화 붐을 주도했던 대표적 화랑으로, 굵직한 문화 행사 를 앞두고 지역 작가를 발굴, 소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전시관의 경우 40대 미만 지역 작가들의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작가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프리젠테이션 워크숍을 진행하고 도자기 체험이나 플로리스트 교육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문화 지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때문에 개관기념전도 이조홍·최미연 등 젊은 작가 20명을 참여시킨 데 이어 24일

판소리와 오페라가 만난 '판페라 이순신'

27일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전통 판소리와 오페라를 결합해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판페라 이순신'이 27일 오후 7시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판페라는 전통 판소리에 서양의 오페라 효과를 도입한 새로운 예술 형식이다.

판페라 이순신은 전남도립국악단과 객원 연기자 100명이 출연해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명랑대첩 위주로 구성했다.

모두 8장으로 이루어져 공연시간은 80분이다. 전통 판소리에 오페라 효과가 가미된 판페라 형식에 첨단 디지털 영상 기법이 도입된 응대하고 징중한 무대로 펼쳐진다.

예술총감독은 박승희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대본은 일영욱 작가, 작곡은 황호준 교수가 맡았다.

이제성 연출가는 24일 “전통 공연양식과 현대적 기술양식의 융합을 시도했다”며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진 무대공간



판페라 이순신 연습장면.

(3D牢记使命 기념행사)으로 한층 현대화된 전통 공연양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여

수세계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와 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1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반액 할인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상반기 마지막 공연

소리꾼 강세희씨 초청 26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상반기 마지막 공연이 26일 오후 7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국악한마당은 8월 한 달간 휴기장을 가지며 9월부터 하반기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무대에 초청된 연주자는 소리꾼 강세희(사진). 강씨는 이번 공연에서 가야금병창 '적벽가'와 '심청가' 무대를 선보인다. '적벽가'에서는 '조주를 활쏘는 대목'을, '심청가'에서는 '화초타령 대목'부터 '부녀상봉' 대목까지 연창을 준비했다.



또 강씨가 활동하고 있는 별밭가장과 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함께 민요연곡을 들려준다.

전남대 국악과와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강씨는 전주 판소리 합창단 단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활동중이다. 고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박시양씨가 맡는다. 문의 062-350-4556.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